

# 정 답 표(1교시)

시험 종류 : 제20회 한국어능력시험(고급 B형)

영역 : 어휘·문법, 쓰기

문항번호	정 답	배 점
1	③	3
2	②	3
3	①	3
4	④	3
5	①	3
6	③	3
7	④	4
8	③	4
9	②	3
10	④	3
11	③	3
12	②	3
13	①	4
14	④	4
15	②	4
16	④	4
17	③	3
18	④	3
19	②	3
20	④	3
21	①	4
22	③	3
23	①	3
24	②	4
25	④	3
26	②	3
27	①	4
28	①	3
29	②	4
30	③	3
31	①	4
32	②	4
33	①	4
34	③	4
35	②	4
36	②	4
37	④	4
38	④	4
39	③	4
40	③	4

문항번호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주관식)	배점
41	<p>진정한 선행이란 자기만족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희생을 통하여 타인에게 헌신하는 것이다.</p> <p>1) ‘-는 것이 아니라’, ‘-라기보다는’과 같은 표현, ‘통하여(해)’와 같은 도구나 과정의 의미를 쓰지 못하면 -2점  2) 전체적인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못하면 -4점  3)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1~4점  4) 40~60자보다 적거나 많을 때는 -2점  5) 한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1점</p>	7
42	<p>배낭여행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두루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예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p> <p>1) ‘-지 않고도’, ‘-지 않더라도’와 같은 표현, ‘-ㄴ 반면’ 같은 표현 의미를 쓰지 못하면 -2점  2) 전체적인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못하면 -4점  3)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1 ~ -4점  4) 40~60자보다 적거나 많을 때는 -2점  5) 한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1점</p>	8
43	<p>상황에 따라 달라지기</p> <p>1) ‘-에 따라’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2점  2) ‘-기’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2점  3) ‘-에 따라’, ‘-기’ 등을 쓰지 않고도 뒤의 말과 호응되면 -2점  4) ‘상황’ 대신 ‘처지’ 등의 의미가 같은 단어를 쓰면 감점 없음.  ‘달라지다’ 대신 ‘변하다’, ‘바뀌다’ 등의 단어를 쓰면 감점 없음.  5)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4점</p>	7
44	<p>해부학적 지식을 담아 전파하고 대물림하려고</p> <p>1) ‘-(으)려고’, ‘-고자’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으면 -2점  2) ‘전파하다’, ‘대물림하다’ 등의 어휘가 없으면 -2점  3) ‘알게 된 지식’ 대신 ‘해부학적 지식’을 쓰면 감점 없음.  4) ‘전파하다’, ‘대물림하다’ 대신 유사한 단어를 쓰면 감점 없음.  5)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4점</p>	8
45	<p style="text-align: center;"><b>작문형 문항의 채점 기준에 따름.</b></p> <p>통계 자료는 각종 사회, 자연 현상 및 현황 등을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이면에 자료의 누락, 변용 등으로 사회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다.</p> <p>먼저 통계 자료는 특정 사회 현상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므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일기예보, 운세 등의 정보 또한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서 생활에 편리성을 더하고 재미를 주기도 한다.</p> <p>그러나 통계 자료는 산출 대상, 기준 등에 따라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 산출의 방법적 부적합성 등으로 수치화한 내용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예를</p>	30

들어 특정 해의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의 경우 장기간의 미취업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인원 등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실업률에 대한 통계가 왜곡되거나 부정확하여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실업률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거나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잘못된 통계 자료 하나로 인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 자료를 대할 때는 그것을 절대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사회 현상의 한 단면 또는 추이를 따라가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